

◇ 아들답게 가꿔진  
나라 독일

우중충하고 번덕스러운 날씨,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똑똑한 성격의 소유자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생활 등 이러한 이야기가 내가 독일로 떠나기전 들은 것들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독일에 1년간 체류할 수 있게된 나는 지난해 8월 서독 Frankfurt 공항에 도착하여 그후 비록 짧은 1년이지만 독일의 생활에 접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우리 간호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공항에 내리자 상상했던 대로 잔뜩 찌프린 날씨로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북적지인 서독의 수도 Bonn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차창밖으로 보이는 우거진 숲, 하얀 커튼과 화분등으로 예쁘게 단장된 부둣, 라인강변의 포도밭을 바라 보면서 역시 독일은 상상했던 것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며 흠뻑 아름다운 정경에 취하였다. 특히 독일인요에 나오는 슬픈 전설을 지닌 「르펠라이」를 지날 때에는 왠지 몽클한 느낌이 들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정경을 나에게 실어주었다. 그리고 누구나 남의 땅을 밟으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것처럼 자기의 국토를 아를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도 어서 빨리... 하며 안따까운 생각에 젖기도 하였다.

◇ 신입받는  
한국간호원들

1년동안 머뭇머뭇서 특히 전혀 언어와 습관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료 간호원들의 생활을 알고 고고 가능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그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또한 질문지를 통한 조사도 해 보았다. 그러나 간호원들의 간호활동상의 문제점이나 그의 구체적인 문제는 후에 보고서에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그들의 생활의 일면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였다.

현재 서독에는 약 6,900명 정도의 간호요원이 머물고 있으며 그중 3,400명 정도가 간호원으로써 500여 병원에 분포되어 근무하며 어느 병원에서도 많은 호감을 사고 있다. 어느 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온 간호원이라면 모든 일에 신임하며 의사들도 한국간호원에게 특별히 환자치료의 도움을 구하는 예가 허다하다. 처음에는 물론 언어의 부족으로 간호활동을 할 때나 전화통을 받을 때 많은 어려움을 받지만 1년 정도 치나면 병실에서 쓰는 언어와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 어떤 불치각한 동료의료인, 혹은 환자, 혹은 일반의국민이 한국에 대해 천연 아무 것도 모르고 실없는 질문이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서독에 있는  
생활의  
—서독에



매우 답답하다고 한다. 비록 부족한 언어실력이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나 슬쁘고 위축된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한다. 하나 같이 그들의 부탁은 서독에 오기 전 충분한 언어습득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부족한 언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의 시간을 이용하여 시립학교 (Volkshochschule)나 개인 어학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언어습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물을 흐리는 것은  
한마리의 미꾸라지”격

그들의 생활은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고국의 명예를 위하여 여러 면에서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대학병원의 일이다. 한국간호원이 1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어 어느 병동에 가 보면 초저녁에는 한국간호원만 근무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지동쪽끼리 근무하므로 서브 의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워 좋지만 너무 의지하다보면 때로는 공과 사를 구별치 않아 잊사함으로써 하여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수도 없지 않